

#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October 2011  
Vol. IV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  
(창 49: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 입어서 이곳에서 벌써 4년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의 현주소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여년전 암흑과 같은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의 강국이 되었고, 더불어 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100여년전 한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들의 옛 기록을 때때로 찾아보며 제 자신을 비춰보고는 합니다. 이제 4년차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성령의 역사를 또 다시 갈망하며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선교사들에게 비춰진 당시의 한국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우리 조상들은 단아하고 순박한 백의 민족일 것이라는 생각들이 무참하게 깨지는 기록들도 종종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 의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알렌 (Horace Newton Allen) 선교사의 일기를 살펴보면 더욱 더 적나라한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한말 최초로 12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작성한 알렌 선교사의 일기에는 “그들 (한국 사절단)의 몸에서 계속 고리타분한 똥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들은 선실에서 끊임 없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냄새에다 목욕하지 않은 고린 체취, 똥 냄새, 오줌 지린 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조선 음식 등이 섞여 온통 선실 안은 악취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절단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일반 서민들의 모습은 어떠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지 100여년이 지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옛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변 마을 부엌

이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중의 하나는 남자들이나 아이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소변을 보는 모습입니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옛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정다웁기는(?) 한데, 정도가 훨씬 더 지나쳐서 대낮에도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들의 대중 교통 수단인 지프니를 타고 가는 중에도 운전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승객들을 뒤로 하고 볼일을 보지만, 승객 중에 어느 누구도 일이 끝날 때까지 불평을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 선교 캠프는 지프니의 종착역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복잡하게 정차된 지프니와 함께 운전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낮잠을 자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주위의 많은 경고 표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일을 보는 운전사들의 뒷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변마을이 있는 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몇 가정은 자신들만의 화장실을 갖춘 집도 있지만, 대부분 방 한칸에 모든 가족이 함께 사는 형편이어서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사치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을 한 가운데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수 많은 마을 주민들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들과 아이들은 아무데서나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해변교회에는 수도가 연결된 이곳의 기준으로 보면 최첨단 화장실이 작년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꼭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아주 분주한 곳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해변 교회의 어린 아이들은 예배 중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 나가서 바로 교회 문 밖에서 일을 보고 또 다시 들어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띠 고등학교 화장실

마띠 고등학교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400여명의 남,녀 학생들과 20여명의 교사들이 함께 생활을 하지만, 이곳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단 한개만의 화장실이 있을 뿐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학생들은 대중 학교 주위에서 일을 보는 것이 학교를 도와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 학생들이 마띠 고등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잘 받아서 졸업을 한다고 할 지라도, 학교에서도 아무렇게나 일을 본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렌 선교사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옛 이야기가 되어진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모두 깨끗하게 변화되어 이 모든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롬 10:11)**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띠 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벽 공사와 더불어 학교 환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무실과 4개의 교실이 모습을 갖추고 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화단과 갓길 조경도 소박하게 단장이 되어서 서서히 학교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서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 많아서 마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롬 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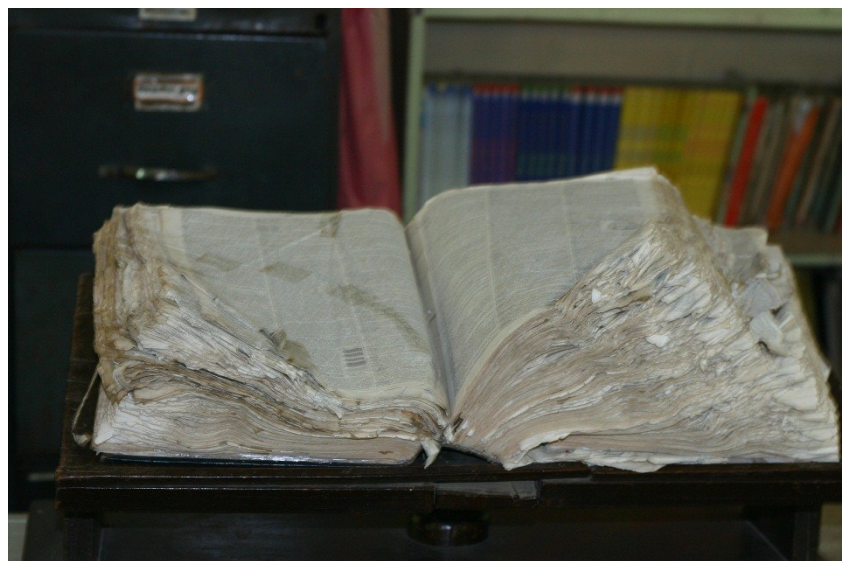
마띠 고등학교에 설치된 간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띠 고등학교의 변화가 학교 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희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밖으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도리어 저희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달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외벽에 저희의 학원 사역을 소개하는 제법 큰 간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에게 현재 진행되는 변화를 소개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저희의 사역을 이해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로 인해서 지역 신문이 관심을 보이면서 학교 소식과 함께 저희도 모르게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리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사양을 했지만 추가 기사를 위한 인터뷰도 요청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내의 6개의 고등학교와 40여개의 초등학교를 감독하는 교육감 (The Chief Superintendent in Education)을 만날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중에 정말 겸손한 교육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마띠 고등학교 학원 사역을 너무도 감사해 하며, 도리어 관할 하에 있는 다른 학교에도 사역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방문한 선교팀들이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로 인한 좋은 경험을 생각하며 관할 내의 타 학교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소개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크다고 하는 이 고등학교는 학생수만 12,000명이나 되고, 교사도 3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 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한 학교 소개를 받으며 학교의 구석 구석을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단지 학생수만 많은 학교로 유명할 뿐 이어서, 학업을 위한 제반 여건은 이곳의 다른 학교와 다름없이 열악하기가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쳐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주셨음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12,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의 백과 사전

최근에 이곳 몇개의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Governor 가 마띠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저희의 사역을 전해 듣고 저희를 만나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서 Governor, 교육감 및 교장과 함께 마띠 고등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11월 14일에 모두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도 기대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길을 열어 주실 줄 모르겠지만, 마띠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 지역내의 모든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직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의 복음 사역이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헌신된 풀타임 '교목'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들이 원하는 도서실 설립,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간단한 직업 교육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학교 교실과 도서실 공사도 중단이나 지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아름답게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학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 1:11)**



**마띠 고등학교의 신축 교실**

**기도 요청**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